

아파트 거주자의 실 구성 요구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the Space Needs of Apartment Residents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전공

겸임교수 홍이경*

교수 오혜경**

Major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Division of Human Ecology, KyungHee Univ.

Additional Professor : Hong, Yi-Kyung

Professor : Oh, Hye-Kyung

<Abstract>

Since the late 20th century, construction companies have developed different brands of apartments while keeping the LOHAS, well-being, ubiquitous, and one-stop-living concepts in mind.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intends to define the diverse space planning needs of apartment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optimum guidelines regarding the subject of space requirements and planning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of residents whose apartment floor size is between 66m² (20 Pyong) and 165m² (50 Pyong) and whose apartment is less than 5 years ol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shortage of storage space in different types of apartment housing units was found to be a chronic problem. Thus, closet sizes must be increased. (2) The size of the master bedroom needs to be decreased, whereas the size of the kitchen and dining room as well as the size of the second and/or third bedroom must be increased. More space is required in common areas occupied by the family and larger closets are needed. Less space is required for the master bedroom.

▲주요어(Key Words) : 아파트(apartment), 공간계획(space planning), 각 실 요구(space needs), 사례연구(case stud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는 자녀수 및 가구원수의 감소와 함께 높은 교육수준, 다양한 문화의 경험,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아파트에 대한 거주자의 의식과 요구가 상향되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에 대한 거주자의 의식과 요구가 다양화 되면서 건설사들은 아파트에 브랜드를 내세운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주된 차별화 전략으로는 웰빙, 로하스, 유비쿼터스,

웬스토피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내 마감재에 있어서도 무공해 자재와 고급재료의 사용, 자연미의 강조, 부대복리시설의 강화, 나아가 유명디자이너들의 설계에 의한 전문성의 강조 등 그 경향은 다양화되고 있다.

이렇게 각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다양하게 전개되고는 있으나 대부분 단지 전체나 단위평면의 배치, 자재의 고급화 등에 편중되었고 각 공간에서는 외부인에게 보여 지는 주방과 욕실 또는 거실이나 현관에 주력하고 있으며 각 실은 외부인에게 노출되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전략의 뒷전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오혜경 등 2008).

이제까지의 연구들에 나타난 아파트 거주자의 아파트 각 실에 대한 연구는 다른 공간에 비해 부족하며 특히 실 요구에 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각 실에 관한 연구는 부부침

* 주 저 자 : 홍이경 (E-mail : lucis@hanmail.net)

** 교신저자 : 오혜경 (E-mail : ohk@khu.ac.kr)

실이나 드레스룸, 또는 아동실 등 각각의 실에 대한 연구(박소윤 등, 2005; 박인석, 2002; 이경아 등, 2005; 오혜경 등, 2008)가 있거나 아파트의 전체 공간을 다루는 중 일부 침실에 관한 부분이 삽입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거주자의 각 실은 실제적인 사용시간이 가장 길며 많은 개인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므로 보다 세밀히 계획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주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때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적인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계획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거주자의 각 실 구성에 관한 요구사항 및 계획방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 분야나 실내계획에 관련된 분야에서 아파트의 실 계획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의 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최근 5년 이내 분양된 20평대-50평대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20평형 4사례, 30평형 6사례, 40평형 5사례, 50평형 3사례 총 19사례를 선정하였다(<표 1> 참조).

<표 1> 조사대상 사례 목록

평형대	조사대상 아파트
20평형	수지죽전 우미 이노스빌 25평형
	수지죽전 우미 이노스빌 26평형
	금천 금광 포란재 26평형
	금천 백운 한비치 27평형
30평형	부천시 역곡 동부 센트레빌 31평형
	구로구 향동 현대홈타운 33A평형
	도곡 아이파크 1차 33평형
	신림 푸르지오 34평형
	방배 이수 34평형
하남 KCC34평형	
40평형	서초동 롯데캐슬 42평형
	도곡 렉슬 43A형
	동대문 삼성 래미안 44평형
	신도림 e편한세상 46평형
영통 건영아파트 49평형	
50평형	도곡 렉슬 50평형
	신림 대우 푸르지오 52A평형
	정자 동양 파라곤 52평형

2. 조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방법은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조사대상 각 가구에 미리 연락을 한 후 조사에 대한 양해와 약속을 하고 각 실에 대한 면접표와 사진기, 녹음기를 준비하여 각 세대를 방문하였다. 각 실별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거주자가 직접 자유롭게 설명하게 하여 이를 면접표에 기입하였고, 이를 녹음하였다. 또한 이에 관련된 사진을 수집하였다.

3. 조사절차

조사는 2008년 12월 17일~2009년 1월 20일 까지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해 연구자가 해당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주민을 대면하여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 사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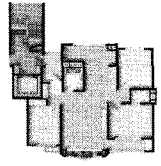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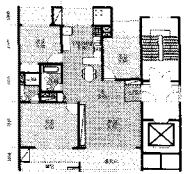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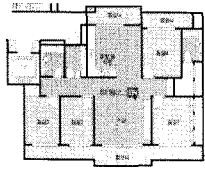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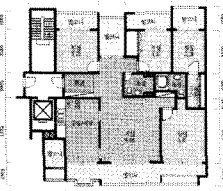
조사대상 사례의 특성을 거주자 특성과 평면특성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각 사례별 거주자 특성은 가족수와 가족구성으로 파악하였는데, 20평형의 경우 2인 2사례, 4인 2사례였고, 30평형의 경우 2인 2사례, 3인 1사례, 4인 2사례, 40평형 2인, 3인, 5인 각 1사례, 4인 2사례였으며, 50평형의 경우 3인 1사례, 4인 2사례였다. 가족구성은 2인구성의 경우 모두 부부로 구성되어 있었고, 3인의 경우 부부와 자녀1인, 4명의 경우 부부와 자녀2인, 5명의 경우 부부와 자녀3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단지 서초동 롯데캐슬 42평형 사례의 경우 가족수가 4인이었으나 부인과 자녀3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에서 언급한 가족구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각 평형대별 대표평면과 평면구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2. 평형대별 결과 및 분석

1) 20평형대

안방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는 크기, 배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다. 우선 크기는 안방에서의 거주자의 생활이 주로 수면, 갠의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용도가 많았기 때문에 방의 크기를 줄이고 거실, 부엌의 공간을 늘리는 것과 안방에 불박이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전신 거울에 대한 필요도 제시되었다. 배치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현관을 열었을 때 안방이 바로 보이는 배치는 거주자에게 불

<표 2> 조사대상 사례 목록

평형대	대표평면	평면구성
20평형		침실3개(안방, 침실2,3), 욕실2개(공용욕실, 부부욕실), 부엌, 거실, 현관, 전후면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다.
30평형		침실3개(안방, 침실2,3), 파우더룸, 드레스룸(불박이장), 욕실2개(공용욕실, 부부욕실), 부엌, 거실, 현관, 전후면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다.
40평형		침실4개(안방, 침실2,3,4), 안방에 인접해 있는 파우더룸, 드레스룸, 욕실2개(공용, 부부), 부엌/식당, 거실, 전후면 베란다, 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50평형		침실4개(안방, 침실2,3,4), 안방에 인접해 있는 파우더룸, 드레스룸, 욕실2개(공용, 부부), 부엌/식당, 거실, 전후면 베란다, 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을 줄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침실2, 3에 대해서도 크기, 배치에 대한 사항들이 지적되었는데, 안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들의 크기가 너무 작아 명목만 방인 상황이 되어 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함을 요구하였고, 나머지 두 침실이 주로 자녀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의 배치시 인접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2인 가족의 경우 침실3을 다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요구도 있어 다양화된 거주자의 융통성 있는 배치계획이 요구되었다. 또한 불박이장의 설치 요구도 있었다.

“거실이 좁아지더라도 작은 방 하나가 제대로 컸으면 합니다. 작은방 두개는 모두 아이들 공부방과 자는 방으로 분리하고 있어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불박이장의 크기는 어쩔수 없지만 칸의 나뉘는 더 계획성이 있으면 합니다.”(수지 죽전 이노스빌)

전, 후면 베란다에 대한 의견으로는 수납에 대한 요구가 대부분이었는데, 기존에 불박이 수납장이 설치된 경우는 불박이장 내부의 구성에 대한 불만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고, 없는 경우는 불박이장을 설치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특히 이의 계획시 외기와 면해 있는 특성상 통풍 및 환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또한 후면

베란단의 경우 김치 냉장고, 생선 및 냄새나는 조리에 필요한 콘센트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2) 30평형대

안방(부부침실)에 대한 요구로는 안방, 파우더룸, 드레스룸에 대한 크기와 배치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즉, 침실의 공간을 줄이고 드레스룸, 파우더룸의 공간을 늘리는 것, 안방 한 면에 불박이 수납장의 필요에 대한 사항이었다.

“침대만 놓고 사용하기에는 다소 공간이 크다. 침실을 줄이고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과 같이 수납할 것이 많은 공간의 면적이 넓으면 좋겠다... 통로의 불박이장은 조명이 어둡고 습하기 때문에 실제 옷을 넣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구로구 향동 현대홈타운)

“안방 파우더룸에 화장대가 필요 없는데 구조상 화장대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화장실 옆 작은 수납장과 안방의 화장대공간을 합쳐서 드레스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신림 푸르지오)

또한 침실에서 드레스룸을 통과해 욕실까지의 길이가 깊어 채광과 통풍이 안 좋고, 드레스룸은 낮에도 조명을 사용해야

하고 욕실의 습기가 드레스룸 쪽으로 전달되는 문제점이 제시 되었다.

이밖에 콘센트의 위치와 개수에 대해 콘센트가 여러 개인 것은 좋으나, 너무 한쪽 벽면에 몰아져 있어 여러 벽면에 재 배치 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사용시 자동으로 콘센트 구멍이 막혀 만일의 위험에 노출 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지적 하였다.

침실2, 3에 대해서는 안방에 비해 방의 크기가 작아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가족수가 2인이 경우 침실2, 3중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미 붙박이장이 있는 경우 그 크기가 작아 오히려 수납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제기되었다.

또한 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구조벽면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 가구배치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그림 1> 참조).

전, 후면 베란다에 대해서는 베란다 공간에도 가전제품을 들 수 있는 콘센트가 요구되었다. 또한 후면 베란다의 경우 여러 가지 부피가 큰 냄비나 대야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붙박이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그림 2> 참조).

한편, 부엌/식당은 부부침실이나 거실에 비해 가구나 집기가 많고, 주방 내에서 일어나는 가사업무도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공간이 좁아서(개수대, 빌트인 식기세척기, 오븐 등으로 인해 부엌내부 특히 하부의 수납공간이 부족)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 가사노동 및 주방용품 보관에 필요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용도에 맞는 수납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싱크대 상부장과 하부장 수납공간이 여유 있기는 하지만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소형가전제품(전기주전자, 믹서 등)이나 저장식품(라면, 통조림 등) 과 같은 물건이 안쪽으로 들어

가서 잘 보이지 않아 깊이가 깊지 않은(30cm이내) 수납장이 필요하다.

또한 부엌의 조명은 사람이 서서 작업을 하면 머리 뒤쪽에서 비취지고 이때 생기는 작업자의 그림자는 주방 상판에서 작업할 때에(칼질, 설거지) 어둡게 하는데, 주방 상부장 아래 조명이 설치된 사례에서는 이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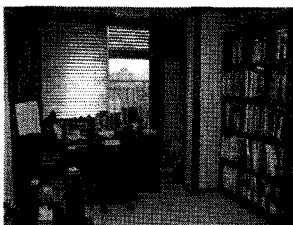
부엌의 각종 설비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설비들로 인해 기본적인 설비사용이 불편함이 지적되었다. 또한 분전함이 부엌, 식당에 있는 사례가 많았는데(하남시 KCC, 도곡동 아이파크, 신림 대우), 이는 모두 가구 배치의 어려움, 미관상의 이유 등으로 다른 곳에 설치되기를 요구하였다.

“주방 싱크대에 음식물 찌꺼기 탈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망에 음식물찌꺼기가 끼고 냄새가 난다. 음식물 탈수 후, 손으로 사이사이에 낀 찌꺼기를 빼야하기 때문에 이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싱크대 하부에 음식물찌꺼기 탈수기 및 정수기의 설치로 복잡하게 꼬여 있다. 결국 호스형 수전의 호스가 복잡한 선에 걸려서 어느 정도 이상 빠지지 않아서 매우 불편하다.”(구로구 향동 현대 홈타운)

거실에 대해서는 공간의 크기나 위치에 대한 불만은 다른 공간에 비해 적었고, 콘센트의 위치와 조명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즉, 콘센트의 위치가 낮아 TV설치시 전선들이 보여 미관상 거슬리고(<그림 3> 참조) 거실 복도 부분의 조명이 어두워 조명이 설치되기를 원하는 사례(<그림 4> 참조)도 있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거실에 TV를 얹고고 서재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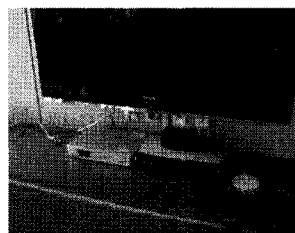
욕실의 경우 욕실의 크기, 개수, 변기배치, 수납장에 관한 내용이 지적되었다. 욕실의 크기가 작은 경우 욕실문과 변기 사이가 좁은 경우가 있었고 특히 문이 변기와 불과 1cm이하 간격을 두고 열려 갑자기 문을 열 경우 변기를 사용 중인 사



<그림 1> 확장된 침실2



<그림 2> 후면베란다



<그림 3> 전선이 보이는 거실벽면



<그림 4> 거실복도의 조명이 필요함

람이 다칠 수 있는 사례(도곡 아이파크)도 있었다. 특히 욕실 내 부족한 수납공간을 대부분 지적하였는데, 실의 크기에 비해 욕실장이 너무 작아 쓸모없음이 지적되었고, 욕실장의 폭이 너무 좁거나(하남 KCC), 그 위치도 세면대 선반 바로 뒤라 장문을 열 때마다 선반의 물건을 치워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또한 현관과 욕실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욕실 갈 때마다 현관의 센서가 작동되어서 불편한 사례(하남 KCC)도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하겠다.

3) 40평형대

40평형대의 경우 침실4개, 욕실2개, 부엌, 식당, 거실, 현관, 전실, 전후면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20-30평형대보다는 비교적 면적이 크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요구가 이전평수에 비해 덜하였지만 여전히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 불박이 수납 가구, 설비 등에 대한 사항들이 지적되었다.

우선 안방의 경우 들어가는 입구에 조명이 없어서 어둡고, 행거설치가 미흡하며 가방이나 핸드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불박이장 안의 통풍문제, 전선거울 필요가 지적되었다.

파우더룸의 경우 조도는 낮는데 스탠드 조명이라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콘센트의 위치가 입구쪽에 있어 헤어드라이기와 같은 전열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여벌의 연결선이 필요한 점이 지적되었다. 이밖에 화장대에 관한 깊이 및 수납공간의 요구사항, 습도 및 이 요구(그림5)되었고, 형광등 덮개들이 너무 어두워 사용시 불편함이 지적되었다.

한편, 드레스룸은 크기가 작고 그 사용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크기가 좁고 조도가 낮아 드레스룸으로 대신 사용하고 있는데 욕실 때문에 습도가 높아 옷 보관에 좋지 않아 드레스룸을 없애고 안방을 넓혀 큰 불박이장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드레스룸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대는 평소 사용하지 않아 이를 수납공간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는 사례(도곡 텍슬)도 있었다. 이미 설치된 드레스룸에는 전선거울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조도가 낮고 현휘가 심하여 조명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그림6). 드레스룸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방 중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어 이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불박이장의 크기를 2배정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다.

침실2, 3의 경우, 역시 크기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안방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방의 크기가 베란다 확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아 다용도실 크기를 줄이거나 없애고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인 방의 크기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사례(영통 건영), 작은방들이 너무 답답하여 두 번째 작은방은 전면베란다를 트고, 세 번째 작은방은 후면베란다를 터서 확장을

한 사례(동대문 래미안) 등이 있었다. 또한 행거 부족, 가방이나 핸드백, 모자, 스카프 등을 넣을 공간에 요구가 있었다.

전, 후면 베란다의 경우 문 설치에 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안방 쪽 베란다는 거실에서 문을 열 때 열리는 방향을 바꾸고 싶은 의견과 문을 열면 베란다 쪽으로 문이 열려 세탁기와 수도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해서 불편한 사례, 베란다 문 잠금장치가 높고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어 불편한 사례 등이 있어 문 설치에 있어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었다. 또한 현재 아파트 공간에는 창고가 따로 없기 때문에 베란다 불박이장에 의존도가 높는데, 카페트, 낚시대, 골프채, 농구공, 선풍기 등 계절별 취미별로 보관되는 많은 물품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크기의 불박이장이 필요하다.

“불박이장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거나 오픈형으로 되어 있다. 햇볕이 들기 때문에 음식물을 보관하기 좋지 않다. 불박이장의 문을 빛이 통하지 않는 재질(ex:목재)로 하는 것이 좋겠다. 불박이장 안에 선반(칸)이 없어서 따로 설치를 했다.”(신도림 e-편한세상)

“베란다 불박이장은 옵션으로 있지 않아서 따로 하였습시다. 베란다에는 양쪽으로 수납장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쪽은 전면으로 짜고, 한쪽은 허리 높이 만큼의 낮은 수납장으로 배려해주면, 화분 등을 올려놓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동대문 이문 래미안)

부엌 다용도실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불박이 수납공간에 대한 설치 요구사항 및 세탁기 주변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지적되었다. 불박이장이 이미 설치된 경우도 좀 더 큰 불박이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작은 불박이장에 이불을 압축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안쪽 공간에 비해 문의 크기가 너무 작아 물건을 넣고 뺄 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례(영통 건영)가 있었고, 또한 세탁실에도 불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사례(신도림 e-편한세상)가 있었는데, 불박이장의 설치 외에도 세탁기 옆에 수도선을 하나 더 빼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어 세탁기용 수도 뿐 아니라 허드렛일을 위한 수도선을 하나 더 배려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적되었다.

4) 50평형대

안방은 부부침실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 사용에 대한 제고를 필요로 하였다. 원래는 안방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작은방의 크기가 너무 작아 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곡 텍슬), 안방은 가족실, 안방 뒤 침실을 부부가 쓰고 있는 사례(정자 동양 파라곤)가 있어 이에 대한 요구 및 개선사항이 요구되었다.

그 규모와 관련해서는 안방에는 침대와 화장대만 배치하

니 클 필요 없고 드레스룸이 큰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배치에 대해서는 안방과 침실2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부부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막아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안방, 파우더룸, 드레스룸, 욕실 순으로 위치해 있는데 욕실과 드레스룸이 붙어 있어서 습기가 차서 위치를 조정하기를 원하는 사례가 있었고, 안방을 통해 드레스룸과 부부 침실로 연결되는 배치의 경우 스위치를 드레스룸 안쪽에도 하나 더 설치하여 드레스룸에서 들어 올 때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에 대한 요구사례가 있었다.

한편, 안방 불박이장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불박이장이 없어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벽면에 이불을 넣을 수 있는 불박이장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 한 면 전체를 불박이장으로 하고 싶은 사례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파우더룸의 경우, 화장대, 조명에 대한 요구사항이 지적되었는데, 화장대가 너무 높고, 서랍 높이가 낮아 수납이 부족하여 불편한 점과, 조명의 교체방법이 불편하고 간접조명의 형태로 되어 있어 조도가 약해 더 밝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드레스룸의 경우 크기를 넓히기를 원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기존의 드레스룸이 있는 경우 그 크기가 작아 크게 불박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았고, 특별히 기존의 공간으로는 부족하여 다른 침실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따로 설치하기를 원하는 사례(정자 동양파라곤)도 있었다. 즉, 드레스룸 한쪽 벽면에만 불박이장 있어 불박이장 더 필요하며, 전신거울의 필요성에 대해 드레스룸의 불박이장의 문에 전신거울이 부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레스룸의 조도가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조사대상 사례는 큰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례에서 안방, 파우더룸, 드레스룸의 불박이 수납공간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않음이 조사되었고, 특히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도 안방에 불박이 수납공간이 추가로 설치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콘센트의 경우 그 수가 부족하거나 배치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었는데, 위치로 인해 에어컨 배선이 미관상 좋지 않거나, 콘센트가 현재 2개 이지만 더 필요

하다는 사례, 콘센트 위치가 한 벽면에만 있어 부족하다는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전화기 선이 침대 옆에 배치되기를 요구하기도 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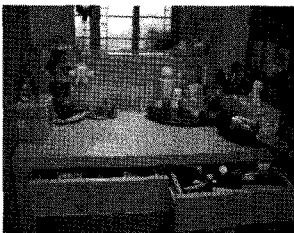
침실2, 3에 대해서도 역시 크기, 배치의 문제가 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다른 평수에 비해 비교적 큰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요구보다는 배치 및 수납을 위한 발코니 확장, 불박이장 설치 등이 주된 요구사항이었다.

침실2, 3이 가벽으로 설계된 사례(<그림 7>, <그림 8> 참조)의 경우 입주 시 옵션사항이었으나 벽이 너무 얇아 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고, 공간도 협소하고 소음문제가 발생하여 각 방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곡 렉슬)가 있었다. 이러한 가벽설계사례는 거주자의 다양성을 높여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도 있지만 소음이나 공간이 부족하여 독립된 침실로 사용이 어렵다면 오히려 거주자의 불편을 더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계획 및 설계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많은 사례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요구하였고(불박이장이 없는 경우 설치하기를 요구, 불박이장이 있는 경우 더 큰 장을 요구), 더 많은 콘센트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설치되어 있는 불박이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구성 및 재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긴 옷(코트류, 바지)를 넣을 수 있는 장이 부족하고, 그 재료가 불투명 유리인 경우도 있어 안이 조금 비쳐보여서 시트지를 붙여 사용하고 있는 불편함이 지적되었다.

“두자짜리 불박이장만 있어 굉장히 협소하며, 단지 두 개의 콘센트 뿐 이어서 컴퓨터주변제품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도곡 렉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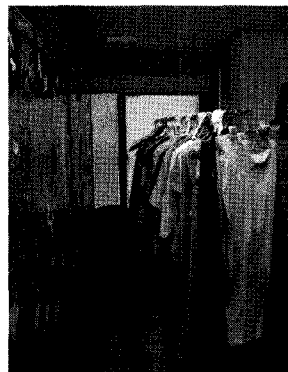
전, 후면 베란다의 경우 역시 부족한 수납공간(불박이장)을 지적하고 있었다. 불박이 수납공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고, 전,후면 베란다 중 한



<그림 5> 안방 불박이 화장대(신도림 e-편한세상)



<그림 6> 파우더룸의 조명(서초동 롯데캐슬)



<그림 7> 침실2



<그림 8> 침실3

<표 3> 아파트 평형별 각 실의 요구사항

평형대 공간별	20평형대	30평형대	40평형대	50평형대
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방보다 거실이나 부엌을 넓히는 요구 *안방 전체 큰 불박이장 요구(수납 공간 부족) *전신거울 필요 *현관에서 안방이 바로 보이지 않는 배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기를 줄이고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과 같은 수납공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요구 *한 벽면에 불박이장 설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방입구에 조명설치요구 *가방이나 핸드백 보관할 공간 제 공필요 *불박이장의 통풍 및 환기문제 *전신거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방을 부부침실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 고려 *방의 크기가 너무 클 필요 없고 대신 드레스룸 크기 확장 요구 *안방-침실2 붙어있는 배치 불편 *이불수납을 위한 불박이장 필요 *안방욕실과 드레스룸 붙어있어 습기-위치 조정 *한 벽면 전체 불박이장 요구 *전화기선이 침대옆에 배치요구
드레스룸 파우더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레스룸 어둡고 욕실과 인접해 습기 전달됨(습기, 환기, 조명문제) *콘센트 개수, 위치제고 *콘센트 안정장치 설치요구 *파우더룸 화장대 와 안방 화장대 공간을 합쳐 드레스룸 설치요구(파우더룸 필요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레스룸의 크기 확장 요구 *드레스룸이 욕실과 인접해 있어 환기, 습도제거 문제 *드레스룸에 설치된 화장대를 수납 공간으로 대체 *불박이장 크기 확장요구 *조도 낮음 *파우더룸의 콘센트 위치제고 *화장대 깊이 얇아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기 작아 불편 *드레스룸을 방하나로 만들어사용 *드레스룸에 콘센트 추가필요 *전신거울 필요 *파우더룸의 화장대 너무 높아 불편 *서랍높이 낮아 수납 불편 *조도 낮아 불편
침실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목만 있는 방은 필요 없음(최소한의 방 크기 규정 필요) *침실3을 다용도실화 요구(유통성 있는 계획요구) *불박이장 효율성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방에 비해 방의 크기가 작아 사용에 불편 *침실 2, 3중 하나를 드레스룸화(가족수 2인의 경우) *발코니 확장시 구조벽이 튀어나와 가구배치의 어려움 *불박이장 크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의 크기가 작음(베란다를 확장하여 사용한 사례) *불박이장 행거가 많이 부족, 백팩이나 핸드백, 모자, 스카프 등을 넣을 공간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실 2, 3이 가벽으로 설계된 경우 벽이 얇아 소음문제 발생,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불박이 수납공간 부족 *불박이 수납공간의 내부구성 및 재질 개선요구
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센트 위치가 낮아 TV 설치시 보이는 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 거실을 서재로 변경할 수 있는 계획요구 		
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욕실문과 변기사이가 좁아불편 *욕실장의 위치 및 폭 제고 *욕실과 현관의 인접배치로 현관의 센서가 작동하여 불편 		
부엌/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노동 및 주방용품 보관에 필요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용도에 맞는 수납장이 부족(소형가전 제품 등의 물건을 수납할 30cm이내 수납장 필요) *부엌의 과도한 설비들로 기본적인 설비사용의 불편 *분전함이 설치된 곳은 다른 곳에 설치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박이장 요구(문의 크기 고려) *세탁실에도 불박이장 설치요구 *세탁기 옆 수도선 추가요구 	
베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납공간확보요구(기존 불박이장 내부 구성에 대한 개선요구 및 불박이장 효율성 제고) *불박이장 설치시 통풍 및 환기 배려 *후면베란다의 콘센트 추가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센트 요구 *후면베란다의 경우 여러 부피가 큰 대야 등을 수납할 선반, 불박이장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 설치에 관한 요구(문 열리는 방향 제고) *계절별 취미별 물품 보관용 불박이장 요구 *베란다 양쪽에 불박이장 설치 *불박이장 문의 재질(유리문은 불편함), 선반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후면 베란다 모두 불박이 수납 공간 설치요구 *다용도실 가스레인지 불필요 *콘센트 필요 *빨래를 널 수 있는 공간 필요

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른 곳에도 설치하거나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불박이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크기가 부족해 선반을 만들거나 후면 뒷 베란다에는 싱크대를 겸용한 불박이장만 있어 윗부분에 선반을 만들어 사용

하고 있었다.

베란다 공간의 수납공간(불박이장)은 각 방의 부족한 수납을 해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베란다 공간에 콘센트가 없어서 불편하여 콘센트

설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다용도실의 경우 김치냉장고(가스 레인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빨래를 널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에 대한 공간을 등을 부엌으로 옮기고 빨래를 널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분전함의 경우 그 위치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여 거주자들이 불만족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설계시 이에 대한 위치가 미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분전함이 왜 흉하게 높이 달려있는지 알 수 없다. 평상시에는 거의 불일이 없기 때문에 아래에 위치하거나 현관에 위치하는 것이 미관상 더 좋을 것 같다.”(도곡 렉슬)

I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획일적인 아파트 각 실 계획을 개선하고자 거주자의 주요요구를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하였다(표3). 이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간의 요구사항을 연관시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평형대에서 공통적으로 안방 불박이 수납공간이 부족함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이에 20평형대의 경우 안방 전체 큰 불박이 장이 있거나 방의 개수를 줄여 드레스룸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30평형의 경우 명목뿐인 드레스룸 보다는 안방에 불박이 수납장을 계획하거나 드레스룸의 크기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0-50평형의 경우 드레스룸이 비교적 크게 계획되나 침실 하나를 독립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대다수 사례에서 나타난 만큼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드레스룸 계획시 수납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반의 위치, 높이, 서랍높이, 전선거울 설치, 조명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배려도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

둘째, 안방의 사용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아파트 각 침실 공간 중 안방이 가장 크게 계획되었는데, 이는 특히 작은 평수의 아파트일 경우 다른 침실의 크기가 너무 작고 안방만 크게 계획되어져 사용에 불편함을 제기하고 있었다. 생활에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수납공간의 계획이 이루어진 채 안방의 공간만을 확보하는 문제, 더욱이 다른 침실의 크기가 너무 작아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은 평수에서는 방의 개수만을 획일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방의 개수가 많을 필요가 없는 가구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공간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0평형대는 방의 개수를 2-3개로 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침실2,3의 경우 이미 앞서 논의한 것처럼, 실질적인 침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모가 적은 평수에서는 방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큰 평수에서도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택의 다양화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콘센트의 위치 및 그 수가 적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베란다 공간은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각 방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수납물을 수용하는 창고의 역할을 겸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전, 후면, 베란다 계획시 보다 많은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것(세탁기 위 공간을 수납공간으로 만드는 등)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콘센트 필요에 대한 요구가 전 평형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아파트 평형별 요구사항 및 대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평형대는 주로 불박이 수납공간에 대한 부족이 많았는데, 안방, 베란다의 불박이 수납공간의 확보 및 침실3의 다용도실화 등을 통한 공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0평형대에서도 안방의 크기를 줄이고 불박이 수납공간을 늘리는 것, 베란다 수납공간의 확보 등 충분한 수납공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40, 50평형대에서는 공간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었으나, 그 활용 및 세부적인 동작방법, 배치 등에 대한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형구 · 강봉임 · 이청웅(2005). 아파트 안방의 가구와 주생활 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6(3), 1-7.
- 김석경 · 임미숙(2005). 맞벌이 가족의 주생활 특성 및 주요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10), 3-12.
- 김세진 · 백지원 · 이상호(2003). 도시 생활 실태를 반영한 아파트 주거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23(1), 59-62.
- 김수진 · 이영수(2004).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에 따른 단위평면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2, 102-109.
- 박소윤 · 이경아 · 이현수(2005). 공동주택의 드레스룸 공간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7(2), 44-47.
- 박수빈 · 오찬욱 · 김석태(2003). 아파트 평면유형 및 가구특성에 따른 공간사용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12), 71-96.

- 박수빈·오찬욱·김석태(2005).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른 부부 전용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계획계, 23(2), 11-14.
- 박인석·김진환(2002). 안방 후면배치 아파트평면의 거주자 반응 평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2), 39-50.
- 박혜선(2003). 중소형 아파트의 거주 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 주거학회 논문집, 14(4), 121-130.
- 양세화·오찬욱·김석태(2006). 아파트 공간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7(4), 93-100.
- 오찬욱·김석태·박수빈(2004). 아파트 거주자의 평면유형별 평면구성에 대한 요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1), 21-31.
- 오혜경·홍이경(2008). 거주자 특성에 따른 아파트 각 실의 요구 및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6(6), 159-166.
- 이경아·박소윤·이현수(2005). 공동주택 단위평면의 실별 면적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7(2), 52-55.
- 이복희·한지영·윤재웅(1999).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방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0(2), 185-193.
- 조성희·박수빈(2000). 아파트 단위평면계획의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6(6), 11-20.
- 조성희·박수빈(2001). 아파트 단위평면계획을 위한 주요구 모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7(9), 109-119.
- 최운정·김민정(2003). 자녀양육기 맞벌이 가구를 위한 아파트 단위평면 계획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4(6), 23-32.
- 최정원·제해성·하미경·이효창(2006). 거주자 평가(POE)를 통한 아파트 주호 실내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5(6), 159-171.

- 접수일 : 2009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09년 11월 21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06월 14일